

발해불사자

발해불사자는 경화가족 모두의 참여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하주보에서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양: 200자 원고지 4~6매
◇발행처: 서울·수원(본사편집실)

남 생각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10월도 다 저물어가던 날, 어릴때 친구로부터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국민학교때부터 얌전한 친구였던 한 번도 편지를 주고 받지 않던, 그저 얼굴만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다소 어리둥절하며 편지를 읽었다. 1년의 대학생활을 마감하는 날이 다가오고, 많은 생각과 외로움에 빠지기 쉬운 가을이라서인지 친구의 글은 무척 따스하게 느껴졌다.

문득 대학에 입학한후 새로운 생활에 젖어서 오래된 좋은 친구들을 잊고 있었더라는 생각이 든다. 천리나 넘는 길을 떠나와서 서울이라는 도시속에 묻혀 옛날의 내 모습을 잃어가는 것은 아니었나?

서울이라는 회색도시 속에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병폐를 범한 것은 아닌가 되새겨 본다.

어린시절 맑은 가을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와 같은 마음으로 이 가을을 나도록 해야겠다.

박성익
<경정구역·1>

예비군 군부대 입소, 개인적 피해 심각 책임 회피하는 연대본부 태도 지양해야

수원캠퍼스 예비군 기본교육 시간만 장소가 군부대 입소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논란 끝에 결국 지난 28일 군부대입소로 결정. 오는 8월까지 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장소(지나해) 경우 학내 교육 1일(군부대1일)가 군부대 입소교육으로 바뀔에 따라 학생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먼저 집결장소까지 차량이용에 관해서다.

서울거주 학생들이 이용한 강남출발 용인군 소재 군부대까지의 차량은 차비로 편도 1천원을 받아 학생들이 불만을 샀다.

수송협회 버스를 이용한 예비군연대의 요금책정은 지나친 금액책정이 아닌가 싶다.

또한 첫날(28일) 이용차량의 경우 훈련후 귀가중 교통을 일으켜 20~30여명의 학생이 성남 근처 도로변에서 패어난 교통을 겪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서울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을 당하였다.

다음날 이들 학생들은 예비군 연대에 환불및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예비군 연대 한 직원은 '피해인원을 정확히 알수 없으며 너무 많아 환불하기엔 곤란하다' 운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말하며 사과는 커녕 학생들에게 피해유를 돌려 버렸다.

그리고 군부대내 의복보관소에서 있었던 일이다.

사복을 예비군복으로 바꿔 입고 의복보관소에서 보관하였던 점퍼가 없어진 일이 발생하였다.

부대내 상사에 연락후 즉시 회수하였으나 그것은 부대내 단기병의 소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보면 위의 일들은 사소한 일들이라 할 수 있으나 일정 부분은 군부대 입소로 인한 일일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비군 연대본부 그리고 군부대와 예비역협의회와의 합동 더 깊은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

박용집
<임학·4>

독자만평

이영철 <경제·2>

이회정 <요공·2>

‘끈끈한 정을 알리는 동문회대자보’ 우리들의 교정엔 언제나 고향하고 동문회, 지역 향우회를 알리는 대자보가 붙어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모교와 고향의 공명체제와 간과하고 개인주의에 몰입된 배와 후배간의 끈끈한 정을 잊은지 너무나 오래되지는 않았을까

교수동정

김용욱교수 일본행

▲김갑진(공대·섬유공학과) 교수=오는25일부터 30일까지 논문 발표차 일본방문 ▲김용욱(공대·화학공학과) 교수=오는7일부터 10일까지 학회참석차 일본방문

동문모임

포항향우회

【서울캠퍼스】▲대진고=오는5일 늦은 5시 공대앞 놀다방 ▲성성고=오는9일 늦은 5시 Y 스토리 ▲금호·중앙고=오는6일 늦은 6시 본관앞 ▲인성·대성고=오는4일 늦은 5시30분 ▲미림·남강고=오는8일 늦은 5시 수화장

【수원캠퍼스】▲유신고=오는4일 늦은5시30분 외대식당 ▲부산대성·중앙고=오는5일 늦은5시30분 공대휴게실 ▲경문고=오는8일 늦은5시30분 공대휴게실 ▲경성고=오는9일 늦은5시 신촌문고앞 ▲종성고=오는9일 늦은6시 민속촌(종합시장) ▲구로고=오는6일 늦은5시 공대휴게실 ▲진주동명고=오는8일 늦은5시30분 공대휴게실 ▲포항향우회=오는5일 늦은5시30분 공대휴게실 ▲금성·태백사=오는6일 늦은5시30분 공대휴게실

습득

분실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정숙경(영문·87) ▲임신주(수학·87) ▲김영기(생물·87) ▲김운수(지리·89) ▲허용석(화학·86) ▲박성근(생물·89) ▲임상순(영문·86) ▲장재복(사학·87) ▲김명우(법학·87) ▲김상수(경영·88) ▲이창섭(경제·89) ▲김영자(경제·88) ▲김건태(무역·85) ▲김상훈(무역·84) ▲위홍(경영·91) ▲원성훈(경영·85) ▲윤웅식(경제·89) ▲김병환(경제·86) ▲이근재(회계·84) ▲장필원(경영·87) ▲정필중(경영·85) ▲이태관(회계·82) ▲신상승(의예·87) ▲신종선(한외·87) ▲박영미(치외·84) ▲정만교(치외·89) ▲정진경(치외·87) ▲김수호(작곡·87) ▲서일한(체육·89) ▲홍승아(무용·90) ▲김정은(체육·91)

【수원캠퍼스】◆학생증=▲전형준(토목공·90) ▲신인수(섬유공·88) ▲문영기(기계공·87) ▲권성훈(건축공·89) ▲양원모

“소식을 기다립니다”

대학주보는 독자여러분의 파나 동아리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과학생활 행사나 동아리 공연등 여러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신 소식이 있으면 언제나 대학주보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서울캠퍼스 편집실: 구내전화(0095)
◇수원캠퍼스 편집실: 구내전화(2056, 2860)

등기

등기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조상수(생물·1) ▲정영철(철학·1) ▲김정현(법학·4) ▲최원준(법학·3) ▲정종식(법학·4) ▲윤종섭(법학·3) ▲하성일(경영·2) ▲한태창(신방·4) ▲전정호(무역·3) ▲이재명(경영·2) ▲김인규(경제·2) ▲양승일(경영·2) ▲이복실(시정·3) ▲김진(시정·2) ▲김성미(한외·3) ▲이상호(한외·2) ▲정병준(한외·2) ▲김지연(치외·4) ▲이연정(기약·2) ▲안희정(성약·3) ▲이준태(성약·4) ▲이지연(기약·1) ▲김지현(피아노·4)

【수원캠퍼스】▲이성운(유전·3) ▲유재동(경영·2) ▲김구(토목·4) ▲조성은(요공·4) ▲이상수(체육·4) ▲백은영(일문·2) ▲안진선(섬유·2) ▲김태용(유전·2) ▲김재호(산림공·1) ▲이현화(체육·3) ▲김병수(전자·3)

산다는 것은 곧 꿈과 뜻을 열 마다 소유함을 뜻한다. 이 경우 공간은 무한하면서도 유한하며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없지만, 사람이 소유하는 시간은 모두 달라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수원캠퍼스 기독교 동아리 가스펠은 12번째 ‘찬양잔치’를 오는6일부터 이틀간 사회대 시청각실과 외대 민주광장에서 각각 오후 5시, 12시30분에 가진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를 높이 찬양하라’ 등의 합창과 더불어 드라마다 공연된다.

독자만평

이회정 <요공·2>

이와같은 학우들의 모습들은 주위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행동이었으며 조국통일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열정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나는 순수한 우리 학우들의 열정을 봐서라도 하루속히 조국통일에 하등의 필요가 없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양심수 1천3백여명을 추운 겨울이 오기전에 하루속히 석방시켜 줄 것을 주장한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었던 학우들과 일일차집 준비를 위해 힘써 주셨던 각과 학생회 및 일문과 학우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서대훈
<일문·3>

알림

11월주제 ‘시간’

시간이란 공간의 대칭어이다. 공간이 상하와 사방으로 무한(無限)에 이르는 한계 개념이라면 시간은 고금을 왕래하는 종적 개념이다.

한편 이 두 개념에 ‘간(間)’자를 빼고 時와 間만을 생각한다면 이들은 모두 실상(實相)이 아닌 허위(虛位)의 실체이다.

사실 그의 존재와 목적을 둘러싸고 해결될 수 없는 논쟁이 끊이지않는 우리 인생자체도 따지고 보면 바로 이 時, 間의 상의 그 무엇이 아닐까.

산다는 것은 곧 꿈과 뜻을 열 마다 소유함을 뜻한다. 이 경우 공간은 무한하면서도 유한하며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없지만, 사람이 소유하는 시간은 모두 달라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수원캠퍼스 기독교 동아리 가스펠은 12번째 ‘찬양잔치’를 오는6일부터 이틀간 사회대 시청각실과 외대 민주광장에서 각각 오후 5시, 12시30분에 가진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를 높이 찬양하라’ 등의 합창과 더불어 드라마다 공연된다.

유한한 시간 활용이 삶의 자세

신용철 <문리대교수·사학>

이와같은 시간의 중요성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더욱 커져서 바쁜 사람의 시간을 빌리기란 삶의 한 부분을 달라는 것 같아서 매우 어려워진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돈’의 중요성에 비교해왔지만 변화의 속성을 갖고 있는것처럼 우리 인간도 항상 변하고 있으며 시간도 그 자체의 모습을 숨긴채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불변의 연속성을 갖는다.

변화의 속성을 갖고 있는것처럼 우리 인간도 항상 변하고 있으며 시간도 그 자체의 모습을 숨긴채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불변의 연속성을 갖는다.

변화의 속성을 갖고 있는것처럼 우리 인간도 항상 변하고 있으며 시간도 그 자체의 모습을 숨긴채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불변의 연속성을 갖는다.

11월의 문화달력

11월에, 대학은 나이를 먹는다.

대학은 11월에 성숙해집니다. 경이로운 마음으로 지난 시간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교정 곳곳에 남겨진 발자국 위로 눈덮인 하얀 두잎 쌓여가고, 우리들의 추억도 함께 묻혀갑니다.

일년을 정리하는 사람들— 사년을 뒤돌아보는 사람들— 모두들 아쉬움과 내일의 기대가 섞여 버린 가슴으로, 걸음을 더욱 재촉합니다.

대학은 11월에 조용히, 그리고 부지런히 자라납니다.

문화달력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어려운일이 마쳐지면 소소한 대학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현대(가)가 제공해 드리는 문화달력을 여러분이 보아주세요. 자료로만 활용하십시오.

나머지 소개하고 싶은 문화행사가 있으면 행사 관련 25일 까지 현대(가)를 문화(가) 서울 본부(가) 140-2 전화 746-3325 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